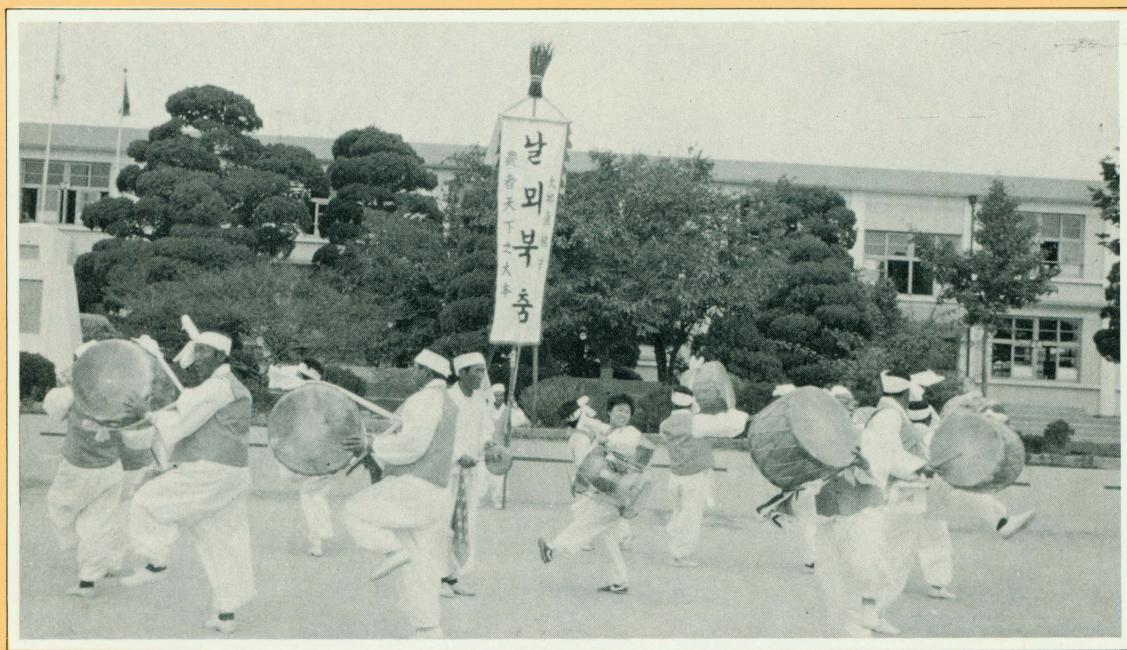


大邱 날외 북춤

—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日 程：'83. 10. 21～10. 23

場 所：安東公設運動場



大邱直轄市

大邱 날뒨 북춤 現況

- 競演部門：民 俗 舞 踊
- 編成人員：15 名
- 演行時間：30 分

날 뒨 의 傳 說

아득한 옛날 달내(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女人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山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女人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山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山이라하여 ‘날뒨’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는 ‘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現在의 大邱直轄市 飛山洞의 地名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날뒨의 전설은 옛 達句伐의 山城이던 達城(現 達城公園)이 있던 山의 起源說話로, 우리 나라 上古의 神母信仰에 근원하는 地名傳說이다.

날뫼북춤의 由來

날뫼북춤은 飛山 農樂과 함께 오랜 ‘시간의 깊이’를 가지고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춤이다. 지금의 ‘날뫼’ (飛山洞)의 원 고개는 達城과 琴湖江 사이의 넓은 들을 끼고 있는 ‘서울 나들’ 길이다.

옛날 고을의 원이 赴任해 올 때는 이 원고개에서 행차가 쉬었고 원의 행차 때마다 백성들이 風樂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였다고 전한다.

옛날에 한 원님이 특히 백성들의 推仰을 받았는데, 이 원이 政事를 보다가 순직하니, 이 곳에 무덤을 쓰고 春秋로 제향하였다. 원님의 외로운 혼령을 달래기 위하여, 春秋의 祭享 때 백성들은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뫼북춤’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춤 사 위

- 정적궁이
- 자반득이 (반직굿)
- 얹어빠기
- 다드래기
- 허 허 굿(강강술래)
- 모 둠 굿
- 살 풀 이
- 덧 배 기

編 成

- 북 : 12名
- 쇠 : 1名
- 장고 : 1名
- 징 : 1名

解 說



○ 정 적 궁 이

상쇠는 단마치로 전원이 자기 걸음폭으로 가락에 맞춰돌면서 원자리로 돌아선다. 이때 상쇠가 2채, 7채 가락으로 정적궁을 치면, 전원이 함께 허리춤과 어깨춤으로 돌면서 넘어간다.

○ 자 반 득 이 (반직굿)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다양한 2채, 3채, 4채, 8채, 12채의 순으로 일사불란의 단체무악의 기능을 발휘한다. 마지막에 전 단원이 돌면서 덧배기 가락으로 추는 어깨춤, 허리춤이 흥겹게 전개된다.



○ 앞 어 빼 기

상쇠가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서 설북이 2채와 3채로 치면, 전 단원이 한 바퀴 돌면서 세번 네번 앞어빼고 돌아가면서 추는 춤이다.

○ 다 드 래 기

다드래기는 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 가락으로 넘어가며, 전 단원이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몰아치면서 추는 춤이다.



○ 허 허 굿

한 줄로 원무(圓舞)를 추면서 설북이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로 도무(踏舞)하는 춤이다.

○ 모 둠 굿

설북이 단마치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각자가 3번 회전하고 다시 모여 설북의 장단에 맞추어 4채, 8채, 12채로 치고,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추는 춤이다.



○ 살 플 이 (一名 農者天下之大本)

농부의 농작과정을 象徴하는 춤이라 한다. 풍년을 구가하는 흥겨운 장단과 우렁찬 북소리에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 덧 배 기

덧배기 가락으로 대북이 3채, 6채로 몰아치면서 12채 까지 흥겨운 굿거리 장단으로 한데모여 춤을 춘다.

출 연 자 명 단

순 번	담당배역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1	북	김 수 배	남	57	비산3 동
2	"	한 해 수	"	66	관음 1 동
3	"	임 봉 구	"	56	비산6 동
4	"	정 만 섭	"	59	"
5	"	배 윤 희	"	63	"
6	"	문 만 조	"	68	평 리 동
7	"	한 우 동	"	62	비산 1 동
8	"	조 병 조	"	35	내당 1 동
9	"	김 용 배	"	62	비산 3 동
10	"	엄 수 팔	"	51	대신 1 동
11	"	조 현 수	"	43	노원 2 가
12	"	김 수 기	"	32	대신 1 동
13	쇠	임 문 구	"	67	비산 6 동
14	징	석 쾌 암	"	72	"
15	장 고	김 애 자	여	23	비산 3 동